

행복한 100세 김형석 교수님

건강칼럼



서해현
서광병원 원장

백살이 되어서 인생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김형석 교수. 지난달 22일 서구문화센터 사랑방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한해에 200회가 넘는 대중강연을 하느라 항상 바쁘다. 지난 해에는 종합소득세를 3천500만원 이상 납부하셨다. 직접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세금이다. 강의 뿐 아니라 매달 1회 동아일보와 매주 1회 조선일보에 칼럼을 기고해 받는 원고료와 매년 한 권 이상 책을 쓰면서 버는 인세에 대한 세금이다.

모든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한다. 그러나 장수가 모든 사람에게 진실로 축복이고 축하할 일은 아니다. 건강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 등 많은 걸림돌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대책이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모든 행복한 노년은 비슷하다. 김 교수는 말한다. 누구에게나 노년기는 찾아온다. 청년기에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장년기에는 가치관과 신념이 필요하다면 노년기에는 삶의 지혜와 모범이 필수적이다.

늙는다는 것은 성숙되어간다는 뜻이다. 지혜는 연령과 더불어 익어가기 마련이다. 노인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늙은이들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늙은 기계가 버림을 받듯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패악을 끼치는 늙은이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행복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생이 안겨주는 어려움을 안고 지낸다. 그렇지만 누가 물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대답한다.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0대 이후 인생의 성숙기에는 삶의 보람 유무가 행복을 가늠한다. 개인적 취미생활로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자기만족의 삶도 좋다. 그러나 인간애를 위한 사명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한 사랑, 민족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실행하는 뜻있는 소수의 삶은 보다 큰 행복을 준다.

선생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90분 동안 쉬 없이 강연을 하면서도 피곤한 내색은 하지 않았다. '100년을 살아보니...' 청중 가운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와 감동스러운 내용의 강연에 청중은 한 눈 팔 틈이 없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청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20대 청년에서 80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모두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린이같이 즐거웠다. 이어지는 사인 요청에도 거절하지 않고 일일이 단정한 필체로 책 앞 페이지에 서명해주었다.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로 3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거리를 걸어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에 놀랐다.

다리와 허리, 머리가 일직선으로, 기울어짐 없이 대지에 직각으로 서서 걷고 있었다. 옆에서 같이 가는 젊은이들은 등이 살짝 굽은 듯 했지만 선생님은 군인과 같이 꼳직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100세 노인이라면 등이 굽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 힘들텐데. 수영과 걷기로 다져온 건강한 신체에 그 연세에도 젊은이에게 지혜와 지식을 나눌 수 있으리라.

식당에서 화려하지 않은 식단이었지만 밥 한 공기를 다 드셨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셨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반찬을 맛보며 밥을 남기지 않으셨다. 나는 지금도 정적이 애국심이며 독서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믿는다.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따른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십시오." 지금도 선생님의 육성이 들리는 듯하다.

필자는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김형석 교수의 수필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들 수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답답한 후진국촌 구석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다. 큰 꿈을 가져라. 1960년대 대한민국이 2019년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데는 그의 공로가 크다.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야할지 혼란스럽다. 목표가 없으면 나설 수 없다. 목표가 있으면 길을 내면서 갈 수 있다. 먼 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다. 김형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장 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이어받아 가겠습니다.

5월 광주, 그날의 흔적을 지켜내는 일

기고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지난 3월 영화 '항거:유관순이야기'를 관람했다. 1919년 3·1 만세운동 후 세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 만세를 부르다 잡혀온 유관순과 '8호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 겁박하는 일본인 판사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며 일갈(一喝)하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안일해진 나를 돌아보게 했다. 어린 그녀에게 참혹한 고문이 가해지는 장면에선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 해서 그날의 아픔이 치유되지는 않을 터. 이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다.

영화를 보는 내내 '5월 광주'가 오버랩됐다. 정치 군인들의 야만적 폭력에 스투라군 깃발이 흔들렸다. 아직도 잊고 잊게 잊처럼 생생한 5월의 광주.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다. 5월의 광주는 오랜 세월 군부 독재정권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조작으로 폭도들의 소소사태로 왜곡되어 왔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의식 있는 이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그날의 진실들은 대부분 규명되어 되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5·18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큰 획이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불순한 세력들은 치졸하고 미혹(迷惑)한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일이 대꾸하고 분노할 가치도 없는 한심한 생떼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바로 5월 정신 아니겠는가.

금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광주학생 항일독립운동도 90주년을 맞았다. 내년에는 4·19혁명 60주년과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다. 그런 점에서 올해와 내년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다. 해방 직후 왜곡되고 굴절되어 온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로 잡을 절기인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5월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알리기 위한 순례길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우리 서구지역에는 많은 5·18 사적지들이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항쟁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서슬 퍼런 계엄사령부의 조사와 취조가 이루어졌던 상무대 영정과 군사법정을 복원해 놓은 '5·18 자유공원', 유상열 열사를 비롯한 청년 학생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광천동 성당의 들불야학 옛터'와 '시민아파트', 상인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쥐어주며 힘을 보태던 '양동시장', 계엄군의 감시 속에서도 고문 등으로 다친 시민들을 치료해 준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어디 이 뿐인가. 민주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

부, 시민군을 체포해 지하에 감금하고 고문을 자행했던 '505보안부대', 청장년과 아주머니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돌맹이 하나로 죽음을 행진한 펼치던 '농성광장 격전지'까지. 그 길을 걸으며 그날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는 것이다. 이는 곧 5월 그날의 시간과 공간의 흔적들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 보스턴에는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 즉, 자유의 길이 있다. 프리덤 트레일은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학살과 보스턴 차(tea) 사건과 같은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연결한 4km 구간의 역사탐방로다. 지금은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보스턴의 대표 관광코스다 됐다.

우리 서구에도 광천동 성당에서 상무대 옛터 5·18 자유공원을 지나 505보안부대, 국군광주 병원을 거쳐 농성광장과 양동시장으로 이어지는 13.5km의 역사 탐방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각 사적지에는 현황과 사진자료를 넣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양동시장에서 쌍촌역 사거리까지 도로변에는 5월 정신을 상징하는 이팝나무를 심어도 좋을 듯 싶다. 버스투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순례길을 탐방하고, 일부 구간은 걸어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양동시장에는 주먹밥 만들기 같은 체험 위주의 콘텐트로 채워볼 생각이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 있는 과거"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불의에 저항한 누군가의 희생의 역사임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사설

5월 왜곡·편향하는 오욕의 역사 계속되고 있다

5·18 왜곡과 편향이 용인의 수준을 넘어 선지 오래됐다. 39주기를 앞두고 5월을 정치적 도구로 삼은 한중 세력들이 그 정신을 비틀고 뒤집는데 몰입하고 있다. 상식과 보편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한 상당수 정치인들에 의한 노림수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5·18 왜곡·편향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2013년께로 분석됐다. 당시 극우 보수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와 막발족한 종합편성채널(중편)이 주축이 돼 5·18을 비틀고 뒤집는데 앞장섰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들이 활동 범위를 넓힌 일베와 전문 보도채널로 운용을 허가받은 중편 등이 그랬다. 본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박카인즈서비스를 활용해 1990년 1월~2019년 5월까지의 국내 신문기사와 방송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독재가 무너지고 노태우 정권에서 5·18청문회와 함께 5·18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절차 진행되던 90년대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언론 보도에 왜곡과 편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5·18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보다 특별법 제정이나 명예회복, 보상 등과 관련한 여러 관심사가 연관되어 나타났다.

물론 그 시기에도 왜곡·편향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영조 위원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5·18의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나 공식 명칭이 된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민중반란'으로 편향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을 제외해 적잖은 논란을 빚었다.

올들어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3인의 망언이 더해지며 5·18 왜곡·편향은 점입가경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5·18 왜곡·편향법 제정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망언 의원 징계와 처벌법 처리를 외면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언감생심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념식 당일 보수 단체의 맞불집회다.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진 채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광주시내 면세점 유치

이르면 연말께 광주시에 면세점이 들어선다. 그동안 광주는 '이용자수와 매출액중 외국인 비율 50%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30만명이상 증가' 같은 까다로운 규정 탓에 면세점 유치에 번번히 실패했다. 일단 유치 실패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내 면세점이 없는 도시가 광주였다.

그런 광주에 관세청이 소비 진작과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을 허가 하겠다고 환영할 일이다. 관광 쇼핑이 대세인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면세점이 광주에 들어서게 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오는 7월 개막하는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선수촌에 면세점 한 곳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현재 광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난다고 해도 그들에게 광주시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호남 KTX 개통에 이

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만나라 얘기 같았다. 그런 현실에서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면 광주 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해서 박수만 칠 일은 아니다. 면세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다. 면세점을 오픈하면 관광객이 몰리고 돈 벌리는 호시절은 지났다고 한다. 실제 서울 등지의 대기업 면세점들은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영업을 의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타격을 줄까 걱정이 앞선다.

대형 면세점은 단순히 유통업체 하나 들어서는데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영세 업체와 함께 생존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 송풍을 터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생발전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지금은 면세점 없는 광주를 벗어나는 것도 좋지 만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세점이 단순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

광주 출신 80년대 군복무자의 비애

5·18 광주 항쟁 때다. 필자는 진지 결혼식에 들렀다가 광주 버스 터미널부근에서 공수부대원들의 시민 무차별 폭행을 목격했다(5월19일). 처음에는 군인들이 왜 저러지 했지만 시민을 개패듯 하는 모습에 소스라졌다. 그들이 휘두른 박달나무 곤봉은 살인무기에 가까웠다.

거리는 급세 피로 물들었고 줄행랑 친 곳이 고향 평동이었다. 다음날인 20일께 시내 사정이 궁극에 전화 걸러나 갔다. 무장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일도 경험했다. 고향 아주머니들이 군인들을 가로막고 나서는 억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는지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80년 5월을 겪은 광주 사람이라면 이 정도 기억은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거다. 그러나 더 큰 고민은 군대서 경험했다. 나중에 보니 광주 출신 80년대 군번들의 일반적 고민이었다. 필자는 이듬해 5월 군에 입대했다. 5·18 발탄 나와도 잡혀가던 시절이다. 광주 출신이 군에 입대하면 괜히 주눅이 들었다. "너 광주서 데모개나 했지?"하며 구타와 폭력이 더해질만큼 한스러웠다.

광주 시민을 개패듯하던 공수부대원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보면 영락

없는 계엄군이였다. 사관후보생이었던 필자는 광주 인근의 상무대 연병장을 뒹굴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연병장의 열기를 버티기 힘들었지만 '살인마 전두환'에 복종하는 것 아닌가 하는 혼란스러움과도 싸워야 했다. 광주출신 80년대 군 복무자가 겪어야 했던 말 못할 속앓이였던 셈이다.

더 두려운 것은 필자가 근무한 부대가 광주 데모를 진압했다는 헛소문이었다. 상상한 시절이라 소문은 그럴 듯했다. 야간 훈련 때면 광주 외곽을 소리 없이 통과하고 정찰하는가 하면 백일 사격장, 무등산 유격훈련 등 광주 시 인근을 누비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자칫 필자가알고 있는 이들과 맞닥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가위눌림에 시달리곤 했다.

군 생활 동안 광주는 금기어였다. 광주라는 말만 나오면 마치 죄인인 듯 눈만 깜빡거리려 했다.

국방 의무마져 버려리 냉가슴 앓듯 했던 광주 출신 80년대 청춘들에게 5·18은 벗어날 수 없는 멍이었다. 그 멍을 찢던 80년대 광주 출신 청춘들 머리에 어느새 하얗게 눈이 내렸다. 벌써 서른이후해가 지났다.

나윤수 칼럼니스트 nys804@harmail.net



약수터

발언대

용서 받지 못할 실수, 음주운전 절대 안된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인명피해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

전면허정지, 0.08%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약 11만9천여 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천822명, 부상자도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3-5잔(0.06-0.09%)을 마시면 시력이 25% 감소하고 반응시간은 40-50% 지연된다고 한다. 한잔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천 (장흥경찰서 율리4지구대)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시장 발행·편집인 장인근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22 사회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지역사회부 (062)606-7723 서울지사 (02)313-1681
편집부 (062)606-7750 문화체육부 (062)606-7737	정치부 (062)606-7722 사건부 (062)606-7762	경제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지역사회부 (062)606-7723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제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